

농어촌公 구례지사, 청년농 농지지원 소통간담회

무등일보 입력 2024.02.20. 13:24 수정 2024.02.20. 13:58

의견수렴·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

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지난 14일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청년 농 대상 농지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. 또한 청년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하고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아 감자와 콩을 재배하고 있는 한 청년농업인은 "농지은행 지원사업 덕분에 농사 규모를 늘려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었다"며 "기반 없이 농사를 시작하는 많은 청년농에게 농지은행 지원사업은 영농활동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"고 말했다.

구례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 71농가에 33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,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임성재 구례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농어촌의 미래가 있다"며 "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청년농들과의 소통을 공고히해 지역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"고 밝혔다.

한편 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오는 26일까지 '2024년 선임대-후매도사업'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. 선임대 후 매도사업은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구례=오인석기자 gunguck@mdilbo.com

저작권자 © 무등일보 기사제공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